

한국전통문화전당, 전당 운영 내실화 꾀한다

오태수 원장 “정체성 확립 · 위상 높일 것”

한국전통문화전당은 '정체성 확립과 위상강화'로 전당 운영의 내실화를 꾀할 예정이다.

전당의 수장이 된 오태수 원장은 “외부에서 바라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모습은 그동안 무엇을 하는 기관인지 그 정체성이 희미한데다 열린 공간이라기보다는 특정 소수를 위한 닫힌 공간, 여기에 인지도가 낮다보니 그에 따른 위상이 낮았던 게 사실”이라며 목표 설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오 원장은 전당의 고유 이미지 창출, 소통과 서비스 중심 콘텐츠 개발, 홍보와 마케팅 강화를 추진전략으로 수립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3대 전략 및 9대 핵심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당은 '언제나 즐겨 찾는 한국전통문화전당을 만들겠습니다'라는 기치 하에 전당 운영 활성화, 전통문화 콘텐츠 확충, 국가 및 공모사업 지속 유치, 센터별 역량 강화 등 4가지 사항을 올해 운영전략으로 삼았다.

전당은 공연장 활성화와 중소 공연단체 육성을 통한 정기 문화행사 추진과 전통문화 으뜸 시민참여단 운영 등을 통해 전당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휴관 없는 고객 중심 전통문화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방문객 중심 365일 개관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홍보관은 기존 월요일 휴관을 폐지하며 국가지정 공휴일과 추석·설명절에도 상시 오픈한다. 3월 말에는 전주 음식·절기음식·전주 10미 등 전주의 향토음식과 자료들을 구비해 놓은 전주한식 자료실을 열고 일반에 상시 공개하기로 했다.

전당은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올해 시민 휴식 공간화를 위한 KTOC 프리존을 선언하고,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운영하는 등 야간 공연을 활성화 한다. 아울러 홍보관, 전시관의 관람 시간 연장을 위해 오는 4~9월 동안에는 오후 8시까지 개방한다.



오태수 원장

외부서 바라본 모습 특정 소수 위한 공간 인지도 낮아 위상 낮아

전당 고유이미지 창출 소통 중심 콘텐츠 개발 홍보 등 추진전략 수립

중소 공연단체 육성 전당 마니아층 확보 휴관 없는 서비스 제공 국가지정 공휴일에도 오픈 시민 휴식 공간화도

이와 함께 한지산업지원센터 내에 있는 홍보관과 상품전시실·기획전시실·한지 제조실도 상시 열며 한지상품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한지문화체험실도 월요일 휴관을 폐지하고 연중 개방한다.

또한 전당은 가족단위 방문객과 젊은이들의 데이트코스도 각종 받는 핫플레이스가 될 수 있도록 야간 조명을 새롭게 꾸며 '야경이 아름다운 전당'을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공예거점 도시 특화를 위해 핸드메이드시티 조성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전주한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주향토 음식 전수 교육, 한(韓) 푸드 스타일링 인력 양성 교육 등 한식 관련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기로 했다. 전주시·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공모사업을 통해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ICT기반의 '디지털 가상



전통문화전당 전경

체험존'을 홍보관 내에 구축하고, 산·학·연·관 협업체계 강화,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통해 한지산업의 고도화에도 힘을 기울인다.

오태수 원장은 “편히 쉴 수 있는 공간, 가보고 싶은 공간, 재미있는 공간을 통해

우선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사랑 받는 곳이 되는 것이 급선무”라며 “이런 선제조건들이 어느 정도 갖추어질 때 동시에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산실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하반기 정기대관 실시

전북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병천)은 2017년 하반기 정기대관을 실시한다.

대관 대상은 전북도예술회관 전시실 1~5관이다. 접수기간은 13~31일이며, 접수는 방문접수와 이메일로 접수 가능하다.

접수된 서류는 심사를 거쳐 4월 중에 재단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방문접수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재단 3층 사무처에서 실시하며, 이메일 접수는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www.jbct.or.kr)에서 대관신청서 및 대관계획서를 내려 받아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故이용휘 화백 작품·유품, 군산근대박물관 기증

평생을 예술가이자 교육자로 군산예술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故 이용휘 화백'의 작품 30여 점과 유품 40여 점이 군산근대역사박물관에 기증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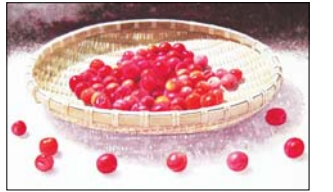
故이용휘 화백은 홍익대학교 동양학과에서 수학하고, 2002년 육조근정 훈장과 대통령상을 받았으며 2016년 작고했다.

이번에 기증된 작품과 유품은 故이용휘 화백의 대표작품인 '인생여로', '할아버지와 손자' 등 30여 점과 작품 활동에 사용되었던 연적, 문진, 안료 등 20여점, 화백의 인생 여정을 보여주는 공무원증, 안경, 시계, 앨범 등 유품 20여 점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공연 & 전시

최인수 화백 '맑은 물 깊은 사랑' 초대전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신수미 센터장)의 문화공간 소소담에서는 최인수 수채화 초대전이 열리고 있다.



최인수 화백은 정물화가 자립법만 식상한 미감이나 소재주의에서 탈피하여 작가의 인생관 혹은 생활 철학까지 유추할 수 있게 하는 화풍을 구현한다.

작가는 표현대상에 대한 정확한 인지 능력과 폭넓은 감성의 유희로 자연의 진상을 오롯이 화폭 안에 정돈시킨다. 그로 인해 건조하지 않으며 자유롭되 방만하지 않은 정도의 미학이 돋보인다.

작품 양두·보리수·석류·마이산 등에는 수채화 특유의 맑고 고운 색채, 담백함과 대담함이 깃들여져 있다.

최 화백은 물빛수채화회 회장으로 대한민국미술대전 특선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입상했고 전북도 미술대전 초대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정해은 기자

임실필봉농악 '춤추는 상쇠-필봉연가', 5월부터 10월까지 무대에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임실필봉농악이 올해에도 어김없이 고즈넉한 한옥을 배경으로 한 야간공연 무대에 오른다.

9월 군에 따르면 임실필봉농악이 전북문화관광재단의 2017년 한옥자원활용 야간상설공연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도비 1억67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올해 선보일 공연은 임실필봉농악의 전통연희곡 여섯 번째 이야기로 춤추는 상쇠-필봉연가(筆峯宴歌)다.

임실필봉문화촌에서 열릴 올해 공연은 5월 6일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10월까지 매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90분간 총 30회에 걸쳐



진행된다. 단, 무더운 한 여름인 7~8월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무대에 오른다.

옛 것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필봉문화촌의 한옥자원을 활용한 임실필봉농악의 야간상설 연희곡은 지난 2012년 처음 무대에 올랐다.

웰컴 투 증병이골 시리즈로 2015년까지 필봉농악의 3대 상쇠 양순용의 삶을 모티브로 상쇠의 삶과 애환을 담아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작년에는 사회적 격변기인 1950년대를 배경으로 필봉마을에 들이닥친 변화의 바

람과 위태롭게 맥을 이어가던 필봉마을과 동네 사람들의 삶과 애환을 연희극으로 담아내 8천여명에 달하는 최대 관객을 유치했다.

올해에는 환갑을 맞이하는 필봉마을 상쇠의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선보인다.

군 관계자는 “누구나 보고 즐길 수 있는 수준높은 전통연희극을 만들겠다”며 “임실필봉농악을 널리 알리고 청정지역의 관광자원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군산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 '백년의 비밀'

군산시립교향악단(단장 한준수 부시장)의 정기연주회 '백년의 비밀' 공연이 오는 16일 오후 7시 30분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선보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윤이상(1917~95) 작곡가의 대표 교향곡 '갈머 심포니 제2번'과, 또 다른 탄생 100돌을 맞이한 쇼스타코비치의 작품, '교향곡 제12번: 1917'을 공연한다.

특히 이번 공연은 4년 만에 교향곡의 지휘봉을 드는 구자범의 객원지휘 아래 80여 명의 군산시립교향악단 단원들이 하모니를 이룬다.

이번 공연의 입장연령은 초등학생 이상으로 공연티켓은 전석무료로 금강방송(www.kcn.tv)을 통해 예매 가능하며, 현장티켓은 공연당일 공연 한 시간 전부터 선착순 배부한다. /군산=문정근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13th Jinan Gwon Unjangsan Goro-shi Festival. It features a large '축제' (Festival) character, a group photo of people holding water bottles, and details about the event dates (March 11-12) and location (Jinan-gun Jucheon-myeon). The slogan is '우린 먹는 물이 달라' (Our drinking water is different). It lists activities like health check-ups, water quality contests, and water tasting events.